

북경 기행문

(본고는 당 협회가 중국동위원소협회(CIRA)와의 협력사업 일환으로 2002년도 중국 방문단(2002. 10. 13~10. 19)을 모집하여 관련기관 및 시설을 방문하고 돌아온 경북대학교 방사선안전관리자 이화형씨의 글이다.)

야호! 신혼여행 때 가보고 처음 가는 해외여행 들뜬 기분으로 기체에 올라 부~웅하는 소리와 함께 어느새 창공을 날고 있었다. 인천과 중국 북경(베이징)은 비행시간으로 1시간 30분 비교적 가까운 거리였다. 내가 생각하는 중국을 머리에 그려보는 동안 어느새 북경공항이 눈에 들어 왔다. 설레는 맘으로 13억의 중국 수도 북경에 받을 달는 순간 색다른 느낌으로 다가왔다.

일행은 이웃집 아줌마 같이 푸근하고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조선족 가이드와 버스에 올랐고, 숙소 호텔로 가는 길에는 중국의 수도라 잘 정돈되어 있을 거라는 예상과는 달리 우리나라 7,80년대 TV에서 볼 수 있었던 집, 상가 그리고 전차들, 그 사이를 비집고 달리는 수많은 자전거가 거리 풍경이었고, ‘~슈퍼마켓’을 ‘~초시’, ‘~빌딩’을 ‘~大廈’, ‘~무역센터’를 ‘~貿易中心’이라는 식의 이색적인 간판이 눈에 들어왔다. 버스는 천안문광장을 지나 숙소에 도착한다고 한다.

서서히 천안문광장이 보이기 시작한다. 수도 북경의 중심이며 중국의 심장인 광장은 남북으로 880m, 동서로 500m, 면적은 44만㎡으로 수백만명이 한꺼번에 모여 집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크다.니 엄청나지 않은가, 광장 주변에는 동쪽으로 중국역사 박물관, 서쪽으로 인민 대회당, 남쪽으로 전문, 북쪽으로 천안문이 있고, 그 중앙에는 인민영웅기념비가 있고, 바로 그 남쪽에는 모택동의 유해가 안치되어 있는 모택동 기념당이 자리잡고 있었다. 광장의 중심에 있는 천안문은 자금성의 남문에 속하고 늘 TV에서 보듯이 모택동 사진이 걸려 있었다. 천안문광장에는 제복을 입은 군인이 광장 곳곳에 눈에 띄었으며, 버스는 광장을 한바퀴 돌았고 광장에서 도보로 20여분 거리의 숙소로 향했다.

호텔에 여장을 풀고는 한국방사성동위원소협회와 국제 협력을 맺고 있는 China Isotope and Radiation Association(CIRA, 중국동위소여복사행업협회)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었으며, 우리 일행을 오랜 친구처럼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

중국은 물 사정이 나쁜 관계로 물은 사먹어야 한다. 오후 여가시간에 협회 오상욱팀장과 현지 호텔 주변을 답사하기로 하고 호텔을 나섰다. 대다수의 건물, 아파트 창문가에는 에어컨의 환풍기들이 도시풍경의 하나로 자리하고 있었다. 가이드의 말에 의하면 여름의 고온과 황사현상 때문에 여름에 창문을 열고 살수가 없어 에어컨이 필수품이라고 한다. 그에 비하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살기 좋은가? 거리의 풍경을 구경하며 다다른 곳은 호텔에서 15분 거리의 서단거리다. 서단은 왕부정거리(북경의 명동거리)와 유사한 상업거리로 많은 백화점과 상점들이 밀집해 있다.

백화점은 우리와 별다를 것이 없었고 일반 중국인이 애용하는 거리는 우리의 시장풍경과 유사하다. 중국물건은 천차만별이고 무조건 흥정하여 엄청 깎아야 한다는 것을 알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다.

저녁 후에는 협회 김영상 이사님께서 한국에서 갖고 오신 술(?)로 우리 일행의 중국일정이 성공하기를 다짐하는 조촐한(?) 술자리를 가지면서 중국에서 첫날밤은 깊어 갔다.

☞ 둘째 날 — Beijing Radiation Ltd.(北京輻射新技術有限公司),
China Isotope and Radiation Association 방문

공식 일정으로 방사선을 이용한 대단위조사 시설[北京輻射新技術有限公司(Beijing Radiation Ltd)]을 방문하였다.

이 회사는 1994년 3월 설립, 직원은 총65명이며, 100만Ci의 Co-60 감마선을 이용하여 일용용품, 화장품, 동물사료, 생물기구의 소독 및 신재료를 개발하고 있으며, 특히 의약품 멸균은 북경동인당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중국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라 한다.

가장 중요한 공식 일정은 CIRA와의 협력이었다. CIRA는 1989년 국가로부터 인가를 받아 설립되었고,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 또는 제조등의 사업을 위한 정부, 회사, 연구소들로 구성된 비영리 경제·사회적인 조직이다. 회원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생산과 관련된 단체회원(병원은 제외)만 240여개이다.

CIRA 常務副理事長인 王國光은 우리 일행을 따듯하게 맞았으며, 2006년 제6차 국제동위원소대회를 한국이 개최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지지하기로 약속하였고 이에 대한 양해각서를 상호 교환하기로 하였다. 이는 한국과 중국의 상호협력을 돈독히 하는 계기가 되는 중요한 전환점이었다고 생각한다.

회의를 마치고 CIRA 주최의 만찬은 북경 중심가에서 가장 유명한 全聚德(1864년 개점)이라는 오리구이 음식점에서 있었다. 만찬에 참석한 중국측은 방사선 관련 핵심인물들이었으며 양국간의 우의를 다지는 뜻에서 'Love Shot', 한국식 술문화와 중국식 술문화를 소개하고 권하며 그날밤은 깊어 갔다.

☞ 셋째 날 — Beijing Hualixing SCI-TECH Development co.,(HLX),
Medical Isotope Research Center in Beijing University 방문

오전에 방문한 HLX는 북경공항에 인접해 있고 TC-SCAN(화물컨테이너검사시스템) 생산품을 판매하고 개발하고 서비스하기 위하여 기업과 Tsinghua대학이 합작하여 설립하였다. 이 제품은 Co-60의 감마선을 이용하여 화물컨테이너 내부를 쉽게 식별할 수 있어서 국경경계 교차점, 항구, 공항, 철도역에 설치하여 밀수, 폭발성 위험물의 적재를 쉽게 찾아낼 수 있는 것으로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을 포함한 유럽과 러시아로부터 특허를 받았으며, 5가지 형태의 제품을 소개하였다.

간단한 식사를 마치고 북경대 Medical Isotope Research Center를 방문, 王凡교수의 안내로 센터를 둘러보았다. 최근 1년전에 센터를 개원, 직원은 7명, 3명은 교수, 4명은 강사(연구생, 석사, 박사과정)로 구성되었다. 이 센터는 방사선약품의 진단과 치료, 병리연구를 하고 있으며, 북경대학의 강의 및 북경대학에 기술지원을 하고 있다.

공식 일정을 마치고 “난 밥을 먹어야 되” “중국음식은 느끼하고 짜서, 영,,,,,”라는 원자력연구소의

정영주선생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며 일행은 호텔로 인접한 한국 음식점을 찾았다.

느끼한 중국음식에 비할 수 없는 한국음식 육개장, 김치찌개들로 가득한 메뉴를 보자 흐뭇한 미소를 지었고 음식점에는 조선족 여종업원이 반갑게 맞아주었으나, 열큰한 음식을 주문한 것과 달리 대부분의 음식이 짜게 조리되었다. 우리 음식을 중국인의 입맛에 맞게 변형된 듯 했다. 그러나 이 음식점은 북경 일정 내내 자주 들르는 단골집이 되었다.

저녁 후 호텔로 오는 중에 정선생님, 박선생님 오팀장과 나는 간단히 한잔을 더 하기로 하고 서단거리로 향했다. 한국의 선술집과 같은 곳으로 들어서는 데 웬지 낯선 사람을 보듯 10여명 우릴 쳐다보고 있었고 나에게는 긴장감, 두려움이 느껴진다. 첫눈에 봐도 정감이 넘치는 50대 아줌마가 메뉴판을 주며 뭐라하니 알 수가 있다, 그때부터 손짓 발짓을 시작하는데 한쪽 구석에서 주인으로 보이는 약간은 잘생긴 얼굴에 30대 아저씨가 아줌마에게 말하는 투가 약간의 공포감을 주는 거친말을 하는가 하면, 아줌마는 그의 말에 답하듯 식당은 갑자기 떠들썩했다. 종업원으로 보이는 아가씨는 옆에서 거들면서 재미있어 하며 마냥 웃기만 했다. 이후로 4번을 더 찾을 만큼 단골이 되었고 모두 한가족으로 구성된 식당이라는 것을 알았고 점점 우리를 한 식구처럼 대해주었다. 최근 서울에서 조훈현을 만나고 돌아온 바둑을 잘 둔다는 사람, 중국은행 다니는 사람들과 만나 중국의 서민 생활을 접하면서 그들의 향기를 느낄 수 있었다.

♣ 넷째 날 — China Institute of Atomic Energy(CIAE), China Isotope Society(CIS) 방문

중국원자능과학연구원(CIAE)(전신 중국과학원근대물리연구소)는 1950년에 설립되었다. 중국 핵과학기술의 토대와 핵 과학기술 도구의 개척과, 기초 및 종합연구를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되는 곳이다. 직원은 총 3,400원이며, 이중 고급 과학자와 고급 엔지니어들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원 산하에 핵물리연구소, 방사화학연구소, 원자로안전과설계연구소, 핵기술과학응용연구소, 동위원소연구소등 5개의 연구소와, 3개의 분과가 있고, 7개의 부속기구가 있다.

유머와 재치가 넘치는 Zhu Tianyu 부원장의 소개로 연구원의 주요활동 및 연구분야를 소개받고 양국간의 상호 협력을 다짐하였고, 일행은 Co-60을 이용한 콘테이너 검색기(IG-SCAN)와 멸균 측정기를 생산하고 있는 시설을 견학하였다.

오후에 방문한 중국동위소학회(CIS)는 중국핵학회 아래의 여러학회 중 동위원소 관련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며, CIRA와 달리 별도의 분과와 직원이 없다. CIS는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학술활동을 위하여 모인 민간조직이다.

협회와 CIS는 양국회원에게 대하여 자기기관의 회원과 동등한 특전을 부여하고, 양기관에서 발행하는 출판물을 무료로 교환하는 것으로 한 CIS와의 학술교류 협정서 체결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일행은 어제 찾았던 서단거리로 향했다. 3개에 10위안하는 기념품 상점에는 여종업원이 우리를 반기며, 무슨말을 하는데 대화가 되질 않자 손가락을 보여주며 가격을 열심히 알려주는 것 같았다. 일행

도 열심히 그래 맞아 얼마 얼마,,,,,, 하는 말을 주고받는 사이 가이드에게 배운 “뚜오 싸오 치엔” -얼마입니까? 하나까 신기하다는 듯 손가락으로 알려주었다. 우리는 눈에 뛰는 식당을 들었다.

식당에 영어를 하는 종업원이 없어 말이 통하지 않자 그림, 한자를 써가며 메뉴판과 식사를 하고 있는 손님의 음식을 가리키며, 손짓 발짓을 했어야 겨우 음식과 술을 주문하고 이곳 중국의 풍경을 감상하며 술잔은 돌아가고 있었다.

☼ 다섯째 날 — The Institute for Application of Atomic Energy, Chinese Academy of Agriculture Science 방문, 이화원 관광

中國農業科學院(IAAE)는 1960년에 설립되었고, 4개의 부, 6개의 연구실, 2개의 센터, 1개의 실험실, 작업자 또는 종업원은 총 279명이며으로 구성되어 있다.

IAAE는 식물, 축산업, 임업, 수산물, 수확공정에서 핵기술과 공간기술의 응용하여 40년동안 수확물의 돌이변이 육종, 농업적 방사선생태학, 농업의 연구를 위한 방사성동위원소, 불임의 곤충 기술로 인한 해충방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IAAE를 끝으로 공식 방문을 마치고 북경의 명소인 이화원을 찾았다. 1750년 청나라의 건륭제가 모친 회갑을 위해 지은 이화원은 중국 최대의 황실 여름 별장으로 사용, 서태후가 해군 경비 3천만냥을 몽땅 투자해 대대적으로 재건하면서 현재의 이화원 모습을 갖추게 되었고, 서태후가 4월에서 10월까지 여기에 머물면서 황제의 지위를 누렸다는 가이드의 안내를 들으며, 곤명호를 보는 순간, 아~, 이렇수가 어마어마한 호수 규모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호수라고 하기에는 너무 컸다. 인공호수를 만들기 위해 파낸 흙으로 200m 높이의 인공 만수산을 만들었고 궁에서 호수의 유람선착장까지의 1km의 걸친 장랑을 만들어 장랑에는 중국의 역사적인 또는 전래하는 사건이나 인물들 그림이 그려져 있어 천천히 걸어가며 넓게 펼쳐진 호수와 함께 감상하다 보면 어느새 유람선 선착장에 닿는다.

서태후는 특히 이화원을 만들고 나서 저녁이면 곤명호 가득히 연꽃 모양의 등불을 물에 띄워 놓고 난간에 등을 다 매달아 마치 천상의 무릉도원을 연상시키며 즐겼다고 하니 과연 중국의 최고 권력자다운 사치스런 놀이였다. 일행은 곤명호를 배타고 돌기로 하고 배에 올라 이화원을 둘러보며, 권력자의 사치의 극치를 한눈에 담을 수 있었다.

☼ 여섯째 날 — 자금성, 만리장성 관광

지난밤에 내린비로 날씨는 쌀쌀했고 간간히 부슬부슬 가랑비가 내렸다. 우산을 준비하고 호텔을 나와 천안문 광장에 도착했다. 천안문 광장에 도착한 일행은 기념으로 천안문 광장에서 단체사진을 찍고 천안문을 지나 자금성에 들어섰다.

자금성은 동서로 750m, 남북으로 960m, 면적은 72만㎡이다. 자금성 둘레는 높이 10m, 길이 3420m의 성벽이 있고, 그 밖에는 너비 52m, 길이 3840m나 되는 수로가 성벽을 감싸고 있다. 건물은 모두 800채나 되고 9999개의 방이 있었고, 이 가운데 상당수는 그림, 도자기, 보석, 시계 등의 공

예품 같은 유물을 전시하고 있었고 999칸으로 된 경복궁과는 비교할 수가 없었다. 자금성을 둘러보면서 황제 일가를 위해 동원된 백성의 고혈을 생각하니 현기증이 났다.

수많은 건물들을 다 볼 수가 없어 일직선상에 위치한 태화전(황제가 정사를 보는 곳으로 자금성에서 가장 웅장함), 중화전, 보화전, 교태전(황후가 기거하는 곳) 등 주요건물 들만 둘러 보았다. 자금성의 모든 건물지붕은 황제를 뜻하는 황금색 기와로 치장되어 있고, 명나라(14대), 청나라(10대)에 걸쳐 24대의 황제가 살았던 곳이다.

금강산도 식후경 자금성을 둘러본 일행은 만리장성 가는 길에 점심을 먹고 간단히 쇼핑한 후 만리장성으로 향했다. 중국에 가면 꼭 봐야 하는 곳이 만리장성이지 않는가?, 기대를 앓고 30여분을 달렸는가 싶더니 끝이 없는 평지를 지나 산이 보이기 시작했고 드디어 만리장성이 보이기 시작했다.

만리장성은 중국 역대 왕조가 영토방위를 위해 축조한 대성벽으로 발해만에서 중앙아시아까지 약 6000여km에 걸쳐 동서로 뻗어 있는 인류 역사상 세계 7대 공적의 하나이지 않는가?

장성이 현재의 규모로 된 것은 명(明)나라시대로, 몽골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였다. 우리가 찾은 곳은 바다링(八達嶺)근처의 장성은 높이가 8.5m, 두께는 밑부분 6.5m, 윗부분 5.7m이며, 120m 간격으로 돈대(墩臺)를 만들어 군사적 주둔과 감시에 이용하였다.

만리장성은 정말 굉장했다. 이 가파른 험준한 산에 어떻게 이런 대역사를 이룰 수 있을까? 일행은 케이블카를 타고 올랐다. 만리장성을 한걸음에 종주하고 싶은 충동이 들었으나 하산을 해야 했다. 도보로 하산하는 길에는 중국 관광객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몸소 느낄 수가 있었는데, 우리를 알아본 호객꾼들이 모자를 들고는 우리말로 오천원, 오천원을 연신 외쳤다. 모자를 오천원에 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깎고 또 깎아 500원을 주고 사기도 하였다. 이렇게 바가지를 쓰다니? 어디를 가나 관광지는 무조건 왕창 깎고 봐야 함을 알게 되었고, 이 또한 중국에서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았다.

청대(清代) 이후 군사적 의미를 상실하고, 단지 본토와 만주·몽골 지역을 나누는 행정적인 경계선에 불과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제는 후손들에게 막대한 불로소득을 안겨주고 있어 그 얼마나 대단하지 않는가?

관광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와 CIRA가 주최한 만찬에 답하는 뜻에서 우리측 주최의 만찬이 있었다. 만찬에는 중국핵학회 비서장(專滿昌), CIRA 상무부회장 등 중국 주요인사들이 참석하였다. 이 만찬에 앞서 CIRA를 방문하였을 때 한·중간에 상호 협력을 다짐하기로 약속한 양해각서의 서명식을 가졌으며, 명실공히 양국협회는 상호 협력체제를 마련한데 큰 의의가 있었다. 서명 후 양국의 우의를 다지는 축배의 잔을 들고 건배를 하였고, 우리 일행의 중국 방문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으며, 앞으로 보다 많은 협력을 약속하였다. 양국이 갖는 마지막 만남을 아쉬워하며, 중국에서의 마지막 밤은 그렇게 흘러갔다.

☞ 마지막 날 — 천단공원 관광과 귀국

호텔에서 짐을 꾸리고 간단히 아침을 하고는 일정에 없던 천단공원으로 향했다.

천단공원은 명·청나라의 황제가 하늘에 제사를 올리던 곳으로 원구단, 황궁우, 기년전이 일직선으로 세워져 있다. 특히, 기년전은 옥황상제에게 제사를 지내는 곳으로 둥근 기단 위에 3단의 빛깔 고운 푸른 기와가 우산을 펼친 듯한 형상이었다. 우리나라 강화도 마니산에서 본 참성단과는 너무 대조적인 화려함과 웅장함이 인상적이었다. 자금성 건물지붕이 황제를 뜻하는 황금색 기와로 치장된 것과 달리 이곳의 지붕은 하늘을 뜻하는 푸른색기와로 치장되어 있었다.

중국에서의 모든 일정을 성공리에 마친 우리 일행은 여행을 아쉬워하며 북경공항으로 향했다. 6박 7일 동안 광활한 중국 대륙의 일부만을 보았음에도 그 문화유적, 중국인의 생활풍습이 강한 인상으로 남아 있었다. 피곤한 몸으로 비행기에 올랐으나, 중국여행이 평생 잊을 수 없는 좋은 기억들로 쉽게 잠들지 못했다. 나는 아직 중국에서 돌아오지 않았다.

이번 중국여행을 주최한 협회와 함께 한 일행 모든 분들께 이 글을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삼영유니텍

“방사선 응용기술분야는 무한한 잠재시장” (정경일 삼영유니텍 대표이사가 한국경제신문과 인터뷰한 내용)

“방사선을 위험물질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를 이용한 응용기술은 암치료, 멸균·항균, 오·폐수처리 같은 의료·농업·공업 분야에서 쓰임새가 무궁무진한 고마운 존재입니다.”

최근 방사선응용제품을 “아시아·오세아니아 방사선방호 국제학술대회”에 선보인 정경일 삼영유니텍 대표이사는 큰 성취감을 느낀다.

지난 2년간 땀흘려 개발한 제품이 전문가들로부터 “놀랍다”는 반응을 얻었기 때문이다.

그가 러시아 국립물리과학연구소(IPPE), 방사능안전센터, 한국원자력연구소 등과 손잡고 개발한 제품은 ◇의료용 방사성동위원소 ◇방사선 노출량 계측기 ◇위·변조방지 및 산업용 필터로 사용되는 방사선막 ◇화물·차량 검색용 엑스레이투시기 등 생활과 밀접한 아이템들이다.

“우리나라 방사선응용기술 시장이 2006년엔 7천5백억원 수준에 이를 전망입니다. 중국이나 동남아 시장도 열려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개발하려는 회사는 없습니다. 전량 수입해다 쓰고 있으니 외화 낭비가 이만저만이 아니죠.”

디스플레이용 브라운관 자동화설비와 공장자동화시스템 등을 생산하던 정 대표가 방사선 관련제품을 개발하기로 결심한건 발전가능성이 큰 시장을 외국회사에 송두리째 내주는게 안타까웠기 때문이라고 한다.

마침 새로운 사업아이템을 찾던 그는 방사선응용기술분야가 미개척지임을 확인하고 좋은 사업 기회라는 생각이 확 들더라는 것.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이니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그를 더욱 부추겼다.

“한국의 원자력 발전분야는 세계적 수준(8위)이지만 비발전분야 활용도는 10%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미국(70%)이나 일본(60%)을 따라 잡으려면 빠른걸음으로 쫓아가야 합니다.”

정 대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국산품 애용을 이같이 촉구했다.

기술협력을 위해 구 소련연방 국가들을 수시로 드나드는 그는 또 “지금 기술을 안들여오면 시기를 놓칠수 있다”고 설명했다.

2006년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핵의학회”준비를 위해 바쁜 일정을 계획하고 있는 그는 “방사선응용기술은 암 진단·치료 등 국민복리와 직결되고 국가산업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 할 수 있는 분야”라며 “방사선응용기술(RT)도 정보기술(IT), 생명공학기술(BT), 나노기술(NT)처럼 중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원자력연구소

방사선원 수출길 터

비파괴검사에 이용되는 ‘이리듐-192(Ir-192)’ 방사선원의 수출길이 열렸다.

한국원자력연구소 동위원소·방사선응용연구팀(과제책임자 한현수 박사)은 과학기술부의 원자력 연구개발 중장기사업의 지원을 받아 지난해 개발한 ‘이리듐-192 비파괴 검사용 방사선원(모델명 IRS50)’을 호진산업기연에 기술이전하고 베트남과 파키스탄에 우선 2000달러어치를 수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리듐-192 방사선원은 산업체 설비의 비파괴검사에 이용되는 방사선원으로 천연 이리듐 금속원판을 연구용 원자재인 ‘하나로’에 일정기간 중성자를 쏘여 핫셀에서 캡슐에 장전해 점선원의 형태로 만든 뒤 이중 밀봉, 용접과정과 품질검사를 거쳐 제조된다.

김현수 박사는 ‘이리듐-192는 운반 및 취급이 간단하고 이동성과 현장적응력이 뛰어나다는 이점으로 인해 산업용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추세’라며 ‘대만·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등까지 포함해 앞으로 시장점유율 50%를 달성하면 최소 500만달러 이상의 수출은 무난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세대학교 의료원

PACS 가동 및 국제심포지엄, 21세기 디지털 병원시대 앞당겨

연세대학교 의료원은 23일 미국 제너럴일렉트릭(GE)사가 개발한 세계최대규모의 의료영상전달시

스팀(PACS)을 구축, 이를 기념하는 국제심포지엄과 가동식을 서울 신촌 연세의료원 종합관에서 열었다.

PACS시스템은 지난해 5월 조인식 후 7월에 영동지역 설치에 이어 신촌지역은 지난 8월 26일 운영을 시작했다. 특히 의료원에 설치된 PACS시스템은 미국 GE사에서 참여하고 있는 규모중 가장 규모가 큰 것이며, CT나 MRI 뿐만 아니라 임상병리 검사 등 다양한 영상들까지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미국 GE사의 중요 소개 사이트로 지정된 바 있다. 또한 한글지원과 기존의 OCS시스템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도 중요한 장점이며, 이와 관련해 미국 방사선학회에서는 조만간 개최할 학술대회에서 시연회를 계획하고 있다. 의료원은 이번 PACS설치 및 가동을 통해 방사선필름 없는 세계최대 규모의 선진 디지털병원을 실현하게 됐으며, 진료실에서의 실시간 검색이 가능해짐에 따라 환자의 대기시간 단축과 아울러 병원 인력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하게 됐다.

회원사 소식을 전합니다

그 달에 있었던 소식을 RI NEWS를 통하여 전하고자 하는
회원사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02)3411-6496

●담당자 : 임 지 은

